

건강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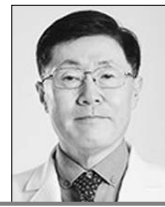
갑자기 발생한 극심한 어깨 통증 '석회성 건염' 의심... 초기 치료 중요

신 체에서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어깨는 관절의 가동 범위가 넓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관절이다.

그렇다 보니 어깨 통증이나 퇴행성 변화가 비교적 쉽게 나타나는데, 갑혹 팔이 빠진 것처럼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이들이 있다. 평소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이렇게 심한 어깨 통증이 나타나면, 대표적인 어깨 관절 중 하나인 '석회성 건염'을 의심할 수 있다.

석회성 건염은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힘줄(회전근개)에 석회(칼슘이 돌처럼 침착된 것)가 쌓여, 어깨를 누르거나 움직일 때마다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일컫는다. 초기에는 무증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석회가 녹아서 흡수하는 과정에서 매우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에 석회성 건염을 화학적 종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통증이 심할 때는 팔이 빠지거나 부러진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며,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도 적지 않다.

어깨를 움직일 때 심한 통증을 동반하며, 이로 인해 어깨 움직임에 제한을 받기도 한다. 어깨 관절 운동 대부분에서 제한을



김종진 김포 연세대비료병원 원장

보이는데, 특히 팔을 앞으로 올리거나 옆으로 올리는 동작이 힘들어진다. 이 외에도 어깨 질환에서 흔히 나타나는 야간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통증이 간헐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증상이 반복되기도 한다.

석회성 건염으로 인한 증상은 다른 어깨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 다른 질환과 혼동하기 쉽다. 대부분 사람은 어깨 통증이 나타나면 오십견으로 치부해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석회성 건염은 방치 시 오십견을 비롯한 이차적인 질환이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어깨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내원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증상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교적 흔한 어깨 질환이지만, 석회성 건염을 일으키는 특정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퇴행성 변화가 대표적인 요인으로 지목된다. 퇴행성 변화로 인해 어깨 부위에 국소적인 압박이 가해지거나, 힘줄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서 어깨 부위에 칼슘 성분의 석회가 침착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밖에 스포츠 활동, 무리한 어깨 사용으로 인한 힘줄 손상과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사무직이나 주부, 잘못된 자세 및 생활 습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석회성 건염은 회전근개에 쌓인 석회는 자연스럽게 체내에 흡수되나, 그 기간이 사람마다 다르다. 또한, 흡수기에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만큼, 시기에 알맞은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에는 체외충격파 치료, 약물치료, 물리 치료 등의 보존적/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통증을 조절하며 치료를

진행한다.

하지만 꾸준한 보존적/비수술적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어깨 관절 내시경을 활용한 힘줄 내 석회 제거술을 진행할 수 있다.

석회성 건염은 주부나 가벼운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40~60대에 호발하며 여성의 발병률이 높게 나타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석회성 건염 진료 인원은 14만 8,795명으로 2019년 대비 40.79%가량 증가했으며, 2023년 기준 50대(32%)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질환이라도 통증 양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알맞은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증상을 방치하면 이차적인 질환을 동반할 수 있는 만큼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건강한 어깨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침착된 석회를 제거하는 것만으로 치료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체계적인 어깨 재활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평소 과도한 어깨 사용을 지양하고 꾸준한 어깨 스트레칭 등을 해주는 것이 좋다.

사설

주택 담보 대출 불허 이후

시중은행에서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 담보 대출을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되면서 곳곳에서 혼란이 계속됐다. 주택 담보 대출 수요가 신용 대출로 몰리면서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이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영업점과 콜센터에는 대출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쏟아졌다. 실제로 대출을 받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입주하는 대단지 아파트들은 미리미리 알아보려는 사람들이 많다. 신한은행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등 가계 대출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실수요자 피해 우려에 전세대출의 경우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이혼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인정했지만, 혼란은 여전하다. 주택담보가 막히면서 신용대출 실패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은 9월 1

일부터 5일까지 불과 5일 만에 4,759억 원 증가했다. 8월 한 달 증가액의 절반을 닷새 만에 넘어선 셈이다.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금융당국은 현재 연소득의 150%까지 허용하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땀집식 처방이 시장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수요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 금융기관들이 실수요자를 판별해내기도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장을 소집해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곳곳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신용대출 실패현상이 심각하다.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조치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수요자들의 혼란이 극심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어느 전직 시의원 바꾸기

전북 익산에서 다가구주택 건축주들이 새마을금고의 이상한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됐다. 해당 금고 이사장과 시공사 대표 이사가 전직 익산 시의원 출신 이어서 짬짜미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

공사 현장은 1년 넘게 멈췄다. 곳곳에 거미줄과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현수막이 여전하다. 지난해 3월 준공됐어야 하지만 공사가 멈춘 사이 습기마저 차면서 재공사를 하려면 철거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다. 피해 금액은 100억이 넘는다. 투자자들과 건축주들은 경제적 이유로 신용불량자가 됐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공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새마을금고 측이 대금을 지급해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8월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20억이 시공사로 넘어갔다. 30%가 진행됐을 때까지 총 35억이 건축주들 모르게 모두 시공사로 넘어갔다. 시공사 측은 새마을금고가 이

런 사실을 알면서도 규정을 어기고 대출을 해줬다며 공로를 인정한다.

뭔가 이상이 있었으면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안 해줬어야 맞는 일이다. 그러나 돈을 받아 간 업자가 금고 측에 책임을 미루는 이상한 상황이다. 업계 대표인 아버지가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함께 과거 익산 시의원을 역임했기 때문 아니냐는 의문만 날로 커지고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역시 관련자를 중징계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인정했다. 전직 시의원인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직무정지 2개월을, 직원 3명은 징계면직 조치를 받았다.

한도대출 임의대출과 기성고 대출 취급 부적정 등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건축주들의 통증과 인감을 받아대 대출을 해줬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 문제의 이사장은 직무정지가 끝나며 복귀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허리케인 밀턴 피해 지역 방문한 바이든



조 바이든(왼쪽 두 번째)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트 피치 허리케인 밀턴의 피해 지역을 방문해 현지 주민, 연방 관계자 등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헬로키티 50주년' 축하 달리기 하는 애호가들



13일(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일본 캐릭터 '헬로키티' 탄생 50주년 기념 '헬로키티 펀 레이스'(Hello Kitty Fun Race)가 열려 헬로키티로 치장한 애호가들이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